

TwoWings 1500 vision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예일교회

담임목사 **강승신**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56

전화 032,345.8031-2

팩스 032,345.8033

홈페이지 www.ylch.org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일교회



큰날개 주일예배
(종려주일)

	전통예배 오전 9:00	축제예배 오전 11:00	젊은예배 오후 1:30
찬양과 경배	예배로의 부름 찬양 10장	예배로의 부름 찬양 십자가를 질수있나	노피어 찬양단 찬양 모든 열방
고백과 헌신	교독문 129. 종려주일 신앙고백 찬송 150장 기도 나송미 집사	기도 이상철 집사 성도의 교제	기도 고진희 간사 광고 및 환영
말씀과 결단	요한복음 12장 12~18절 (신약 167)		
	종려주일의 아이러니		
	설교 담임목사		
축복과 파송	봉헌 151장 축도 담임목사	봉헌 그날 축도 담임목사	봉헌 예수 열방의 소망 축도 담임목사 나눔과 교제

공동체예배 15:00	4월 예배위원	
가정 예배	[다음주 기도] 전통예배 박현숙 권사 축제예배 이승길 장로 젊은예배 이해수 간사	[봉헌] 전통예배 김영숙 박선희 축제예배 박용수 임경진 남순자 박현숙 정세희 젊은예배 박해인 최민선
수요기도회 19:30	5월 봉헌위원	
가정 예배	[전통예배] 김정화 한미라	[축제예배] 서동협 정오영 김해숙 서덕이 정영아



오늘의 말씀

종려주일의 아이러니

[요한복음 12장 12~18절]

첫째, 이 문제는 ()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에 있습니다.



작은날개 목장나눔

죄의 지배 vs 은혜의 다스림

[로마서 5:6-21]

W

WELCOME

환 영

..... ICE BREAK를 해봅시다.

W

WORSHIP

경 배

.....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뢰하며 기도합니다.

W

WORD

말 씀

.....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과 싸웠을 때 화해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당당하게 사과를 하고 화해한다
- 편지를 써서 용서를 구한다
-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낸다
- 전화를 한다
- 다른 친구에게 부탁해 사과의 뜻을 전한다
- 상대방이 먼저 화해 신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 잘 싸우지 않는데 한 번 싸우면 화해 따윈 하지 않는다
- 싸움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 선물을 보낸다
- 기타

Q

QUESTIONS

질 문

1.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8절) 하나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10절) 또 우리가 얻게 될 복은 무엇입니까?(11절)
2. 아담과 비교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15-16절)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17절) 죄가 있는 곳에 넘치는 것이 무엇입니까?(20절)
3. 본문 말씀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망에 지배를 당하며, 믿으면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다.
 -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게 된다.
 - 은혜로 말미암아 의가 다스리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
 - 죄보다 은혜가 더욱 강력하다.
 - 한 사람의 불순종이 결국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 기타 :
4. 하나님의 은혜에 다스림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은혜 충만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W

WITNESS

증 거

이번주 행복모임의 진행현황과 베스트와의 관계맺기에 대해서로 나누어 봅시다.

W

WORK & PRAYER

기 도

돌봄이 필요한 목장가족이 있는지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1) 문제를 맡기며 기도
- 2) 베스트와 행복모임을 위해 기도
- 3) 치유와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
- 4) 축복기도



간증나눔

인도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1)

- 여성D-1목장 이해경 권사 -

안녕하세요. 여성 D-1목장 이해경 권사입니다.

저는 인도 아웃리치를 가기 전 너무나 치열한 영적 싸움과 현실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몇 달전 유치원3법이 국회에 통과가 되었고 유아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교재를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유아 출판 사업을 하는 저희는 직격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일 년은 더 가겠지 했는데 인도아웃리치 무렵 여기저기에서 교재를 끊겠다는 연락이 오고 지사들마저 이제는 교재영업을 끝났다고 두 손을 드니 본사인 저희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초등 사업을 이제 막 벌렸는데 유아출판이 문을 닫으면 어디서 자금이 들어와 초등 교재를 개발해야 하나 막막함과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1월부터 당장 들어오는 수입이 끊기니 너무나 당황스러워 아웃리치 준비에 집중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 아웃리치 비용을 다 지불하지 못해 선교회 본부 담당 목사님께 양해를 구해 후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가야하나 하는 자괴감도 들고 사업이 절단난 상황에 인도아웃리치가 웬 말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와 못 간다고 하면 선교회 본부와 우리 교회에 폐가 될 거 같아 무조건 가는 것으로 마음을 정했지만 인도아웃리치 준비에 집중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겁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인도아웃리치를 가게 되었습니다.

첫 날 목이 아프고 몸살 기운에 컨디션이 안 좋은 채 들어간 숙소는 작년 목사님께서 묵으셨던 그 방 같았습니다. 습도가 높고 추우며 침대는 20년쯤 사용한 것처럼 폭 꺼져 있어서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아팠습니다. 잠들기 힘든 인도 첫 날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는데 어제보다 더 안좋아진 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웃리치 개회 예배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도행전11장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증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평범함이 위대함으로 위대함이 평범함이 되는 상항 평준화에 대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본질에 마음을 쓰지말고 본질에 집중하라’는 말씀이 지금 저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같았습니다. 그 때는 단지,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것인 줄 알았는데 아웃리치 내내 이 말씀이 저를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첫 날 전도를 나가기 전 주의사항을 듣게 되었는데 ‘한국에서처럼 들이밀면 안 된다. 이들은 이해하고 배려하고 관계를 만 들어가며 전도해야 한다. ‘는 것이었습니다. 언어도 잘 안되는데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들을 이해하며 전도할지 위축이 되었습니다. 저희 8팀을 인솔하는 선교사님이 “야미니, 마니샤 두 청년은 작년 아웃리치 때 전도되었는데 훈련을 받아 이번 아웃리치 스텝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이들의 열정과 진심을 다해 우리를 돕고 함께 전도하는 것을 보

고 도전을 받았고 전도에 대한 열정이 올라왔습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증인되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되는 것을 보니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 전도에 몰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날 함께 했던 현지인 스텝 아비숙은 인도에 있는 삼성에 다니는 인재였는데 부모님은 교회 다니는걸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웃리치가 너무 좋아 직장도 빼고 스텝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스트 제도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면 많은 불합리함을 당할 수 있는데 모든 걸 포기하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는 아비숙을 보며 저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저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부끄러웠습니다. 평범함이 위대함으로, 그 위대함이 평범함이 되는 상향 평준화가 우리 전도현장에 고스란이 녹아져 있었습니

다. 저희 팀은 델리 두날개교회를 탐방하고 도고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치유기도를 받았습니다. 찢어질듯 아팠던 목의 통증과 목이 부어 귀까지 웅웅거리던 모든 증상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숙소로 들어오니 역시 축축하고 추운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도움으로 핫팩을 꺼안고 잠들어야 했으나 마음은 천국이었습니다.

주일 초청예배에는 전도했던 남자 청년 한분과 여자 두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았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기뻐했습니다. 관계를 맺으며 전도하니 서로를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방갔던 미나미 가정에 두 분의 어머니가 예배에 오셔서 서로를 반가워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가정은 마치 루디아 가정 같았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 그 건물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치유기도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심방이었습니다. 오래 잊혀지지 않을 그 가정과 이웃들을 생각하며 기도 안에 담습니다.

- 다음주에 계속.. -



어린 나귀 타신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부활주일 전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마 21:1~11, 막 11:1~11, 눅 19:28~40, 요 12:12~19). 어린 아이들과 많은 군중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자신들의 겂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찬송을 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왕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항의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눅 19:40).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권세와 힘으로 왕이 되었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군대와 전쟁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세상의 왕은 백말을 타고 나타나서 사람을 겁박하고 강한 힘으로 겁박하며 다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로마의 무서운 압제와 관리들의 폭정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환영하였습니다. 신분을 나타내는 겂옷을 벗어

서 길에 깔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찬양하며 영접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완력이나 권력으로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전혀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역의 완성을 위해 어린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겂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겂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감이기도 하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오실 때 당연히 화려한 붉은 카펫을 깔아 들여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겂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 놓고 그 위를 밟고 지나가 시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으로 맞아 드리는 사람은 겂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깔아 드려야 합니다. 자존심과 아집이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면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감정

이 상해도 안되고 자존감의 손상되면 참지 못합니다. 감정 조절 기능을 잃어버리고 난 폭하게 변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삶에 걸친 겂옷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평소에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감정이 폭발하면 전혀 딴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속에 주님이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겂옷을 길에 펴야 그의 겂옷을 주님이 밟으시고는 신뢰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이 겂옷을 벗은 뒤에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권력자들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실상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의 행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찬송하였는데 지금은 환영하고 찬양하지 않기에 주님 말씀처럼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14세기 유럽을 강타한 페스트(흑사병)는 3년 동안 약 2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 갔습니다. 본래 중국이 근원지로 추정되는 이 병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이탈리아에 와서 전 유럽으로 퍼졌습니다. 당시 이 병이 걸리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천벌이라고 여

겼습니다. 페스트와는 다르게 중국 우환에서 시작된 코로나 19는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던 나라들도 코로나 19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여길 수 밖에 없습니다. 논리가 통하지 않고 법과 전통, 질서가 무시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고, 돌들이 무언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겂옷을 벗어야 합니다. 좀 더 겸손해야하고 조금 가난해지고 조금 더 약해져야 합니다. 어린 나귀 타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해야 합니다.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

1.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 성령충만하여 2020년을 힘있게 이끄시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비전과 영력과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 목사님에게 영적 담대함과 민감함을 허락하시어 언제나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소서.

2. 봄 사역을 위해서

- 봄사역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5월 첫주에는 모든 사역들이 힘있게 시작되게 하소서.

3.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 인도에서 코로나로 인해 한국인 비자를 전부 무효화 처리를 하게되었고, 다시 해외를 나가면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선교사들이 관광비자인 상황으로 비자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자 신청에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발급되도록 하소서.

성도를 위한 기도

1. 박진경 자매

- 학교 개강이 밀려 모든 수업을 사이버 강의로 하게 되어 일정들이 모두 변동되었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맡겨진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 완악한, 연약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봄사역들이 나의 계획,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뜻대로 흘러가게 하소서.

2. 정세희 집사

- 재택근무로 전환하면서 일상패턴이 바뀌어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순위가 잘 정해져서 가정 생활과 일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소서.
- 가운이가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면서 교육을 제가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 하나님 은혜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을 승리하고 영광 주께 돌리게 하소서.

- 목장 식구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장 식구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 어려운 가운데도 가정의 평안과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 놀라운 주님, 부족함에도 넉넉히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가정의 재정의 주관자 되신 주님! 역사하여주옵소서.



교회 소식

이번주 소식

1.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난 당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위해, 열방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3. 다음주일(4/12)을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기쁨의 절기, 은혜의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주일에는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4. 3,6,9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5. 새 봄 사역이 준비중입니다. 5월 첫째주에 모든 사역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20 여름 두날개 필리핀 아웃리치가 7월 20일(월)부터 25일(토)까지 진행이 됩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4월 30일로연기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 유한나 팀장)
7. 다음주 축제예배 후에 정기제직회로 모입니다. 제직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리 집사 이상 필수 참석)

다음주 봉사

[주방봉사]
주방사역관리 담당 : 정일숙, 황귀순 권사

[청소]
본당 : 여성C-2목장(강미령 목자)
준2층,계단 : 여성D-2목장(나승미 목자)
2층 : 여성B-1목장(김영숙 목자)
3층 : 여성A-5목장(김화심 목자)
비전홀, 멀티룸, 화장실 : 청년공동체

새가족 섬김이

노경자 집사 (섬김이 : 강애진 집사)
홍창의 형제 (섬김이 : 김민수 형제)
박순례 집사 (섬김이 : 장미경 집사)
조광래 형제 (섬김이 : 한상익 간사)

... 유로교회는 ...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세계비전을 품고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 날개는 전체가 모여 감동적인 축제로 드리는 대그룹의 축제예배이며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으로 모여 삶을 나누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목장모임입니다.

이 땅에 어둠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는 동안 그들을 찾아 쉬지 않고 섬기고
복음전하며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앞장서며 열정으로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예 배 시 간

전 통 예 배	주일 오전 9시
축 제 예 배	주일 오전 11시
젊 은 예 배	주일 오후 1시 30분
공 동 체 예 배	주일 오후 3시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9시 30분
유 아 부	주일 오전 11시
유 초 등 부	주일 오전 9시
청 소 년 부	주일 오전 9시
작 은 날 개 모 임	목장별 정한 시간

섬 기 는 분 들

담임목사 강승신	장 로 이성근 이승길
전 도 사 장효진 권요섭	
원로목사 강경원	원로장로 최기준

온라인으로 예일교회를 만나는 방법

스마트폰 QR코드 어플을 사용하세요.

홈페이지 www.ylch.org

모바일홈 m.ylch.org

페이스북 Yeil0691 Church

KT올레TV CH888, 예일교회 검색

온라인 봉헌 농협 351-0446-9239-73(예일교회)



마을버스

51번, 51-2번 (가톨릭대 입구 하차)

시내버스

5번, 12번, 20번, 52번 (가톨릭대 입구 하차)
75번 (역곡 남부역 하차)

시외버스

83번, 88번 (역곡 남부, 괴안동 입구)